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수정안에 여야 ‘OK’

여야, 세월호법 극적 타결까지

이달내 정부조직법과 일괄 처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까지 여야는 지난 30일 하루 동안 부산하게 움직였다.

우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두 번째 ‘3차 회동’을 진행했으나 치열한 신경전으로 합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유가족의 야당에 대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러번(유가족) 의견을 받아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박 원내대표께(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면서도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솔한 대화를 해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은 이 원내대표가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특정 안에 대해서만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드렸으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질문에 전 위원장이 “네 그거다”라고 답하면서 일단 전권위임 문제를 뒤로하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벌어진 여야 협상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2차 협상안 +α’, 즉 특별법사 후보 4명을 여야 및 세월호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하고 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고르는 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가족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 딜’ 여부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세월호법, 유병언법 등은 다 연계된 문제다. 패키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새정치연합 측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갈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애초 ‘박영선안’에서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합의를 거치도록 했던 전제조건을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고치고 유가족들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내면서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유가족의 개입이 입법권 침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새정치연합 측

이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도 유가족 대표와 의원총회장을 찾아 동의를 구하는 등 숨겨온 행보를 보인 후 여야의 이날 마라톤 협상은 ‘타결’이라는 성과물을 냈다. 또 바로 이날부터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는 등 정기국회도 정상화됐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쌀 관세화’ 강력 항의

광주·전남 농민단체회원들이 지난 30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향의 방문, 상복을 입고 “정부의 쌀 관세화 WTO 통보는 식량주권 포기이며 최악이다”고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2년 간 장외·반목정치로 어려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세월호법 대치를 둘러싼 국회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권교체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국정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서명과 관련,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역에 각각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에 내년 12월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WTO에 수입쌀 관세율 513% 통보

국회 상임위 ‘보고 지연’ 질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내년 1월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양허표에는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분량’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18일 정부 발표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양허표에서 쌀쌀용 수입 비중(30%) 등 쌀 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분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회원국에 3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 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

통상자원위원회의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수입 쌀 관세율 결정과 관련해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시한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에서는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마지막날에 와서야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느껴질 것”이라면서 국회 보고가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양해를 구한다”는 이도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장관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을 혁신하라”

野 혁신실천위 공식 활동

원 위원장 “실천이 중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 30일 상례례 겸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이 갖는 뜻 중 하나는 정치혁신이고 그 키워드는 실천에 있다”면서 “많은 정치혁신에 관한 콘텐츠가 있지만 중요한 한가지라도 분명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혁신안을 ▲당장 실현 가능한 영역 ▲당헌·당규 개정 영역 ▲여야 합의 영역 ▲개헌 영역 등 네 가지로 나눠 추진토록 했다.

원 위원장은 “스스로 혁신 주창자, 실천자가 될 때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당원 모두 혁신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혁신실천위의 향후 방향타를 ‘기득권 내려놓기’와 ‘실천’에 두었다.

원 위원장은 “구질서 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혁신이 출발하고(혁신안 중) 하나라도 실천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 실천이 당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듣는 혁신’을 실천하겠다”며 ‘듣겠습니다’라는 경청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과적 큰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계파 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 추진해야 한다면

비대위가 앞장서겠다”

문화상, 혁신위 논의 전제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개헌 문제와 관련, “여기(혁신실천위)에서 허심탄회한 결과가 나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안이라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중대선거구 개편이나 권력구조 문제 등도 중요한 정치문화 개혁·혁신인데, 이는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개헌의 문제라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여야 정치권 내에서 개헌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사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대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베스트하우스 2014년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급면적 (㎡) 78/75**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입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청솔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노블리 **ONGSUNG**

신착순 마감임박

062) **385-3080**